바닥 없는 배면 어떠리! 강 건너면 그만이지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㉟ 인도에 다다른 현장법사

외뿔소 요괴 물리치고
한 걸음 더 인도 땅 깊숙이 들어서니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이 나오네.
감회도 새로워라, 금강경이 설해졌던 곳 아닌가?
환대 속에 하루를 머무르고
다음날 인도 왕성에 들어갔는데
아직 여난이 끝나지 않았구나, 여자 요괴 한 마리 있다.
달나라 옥토끼가 하계로 내려와
진짜 공주 쫓아내고 공주로 변신해
현장법사 가로채어 그 원양(元陽)을 채취해서
불로장생의 신선이 되려고 호시탐탐
공 던져 신랑 고르는 풍습을 빙자하여
일부러 현장법사를 겨누어 맞히고는
왕의 위엄을 빌어 강제로 혼사를 이루려 한다.
손오공이 그런 요괴의 정체를 모를 리가 있나?
한바탕 드잡이질에 요괴를 때려죽이려 하는데
"제천대성 잠깐 참으세요!"
광한궁(廣寒宮)의 태음성군(太陰星君)이 등장하여 옥토끼 구해가는구나
음(陰)을 상징하는 달의 요괴 물리쳤으니
이제 원양을 도둑질하려는 요괴는 끝!
요괴에게 자리 빼앗기고
갇혀 있던 공주 자리 찾아주니
현장법사의 공덕이 하나 더해졌구나!
가는 길에 구원외라는 신앙심 깊은 불자 집에서 극진한 환대를 받기도 하고…….
이제 정말 부처님 계신 곳
영취산 뇌음사에 도착하였네.
하늘 중간에 성스러운 오색 빛을 띠고
상서로운 안개가 겹겹이 둘러싸인 곳
바로 저기가 거기로구나!
감격에 겨운 현장법사
일보일배를 하는 공경한 자세로
앞으로 나가는데
콸콸 흐르는 강,
너비가 팔구리는 되는 강이 가로막네.
어찌 건너나 걱정을 하며 찾아보니
능운도라는 나루가 보이고
그 팔구리를 가로지른 나무 외다리가 있구나.
만길 무지개가 옆으로 누운 듯
천길 비단이 하늘 끝에 닿은 듯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아닐세.
현장법사 벌벌 떤다.
"나는 못 건넌다 못 건너!"
손오공이야 휘적휘적 건너서 어서 오라고 손짓하지만
저팔계도 벌벌 떨며 주저앉는다.
이 다리를 건너야 부처가 될 수 있다지만
부처가 못돼도 그만, 절대 못 건넌단다.



그림 · 최주현

그 때 물결 속에서 부르는 소리
"이걸 타시면 돼요! 타세요!"
누군가 삿대로 배를 몰고 나타난다.
손오공 밝은 눈으로 보니
접인조사(接引祖師), 보당광왕불(寶幢光王佛) 일세
그런데 배가 해괴하기 짝이 없다.
뱃전만 있고 바닥이 없는 배로구나.
접인조사님 말씀하신다.
티끌 세상에 물들지 않아 하나의 근원으로 돌아가니 억만 겁 토록 편안한 자유롭게 가는 배라네.
겁내는 현장법사 억지로 태우고 강 가운데로 나가는데 물살 위로 시체 하나 떠내려 온다.
알고 보니 현장법사 시체!
손오공이 말한다.
"사부님 겁내지 마세요! 저건 사부님의 껍질입니다."
접인조사가 축하한다.
"저건 당신이요. 육체의 구속을 벗었군요!"
이제 현장법사도 세속의 때를 벗고
구름도 탈 수 있는 몸이 되었구나!
차례로 여러 성중들의 환대를 받으며
석가모니불 계신 곳으로 나가니
부처님 참으로 기뻐하시네.
그 기나긴 길의 노고를 치하하시네.
그리곤 아난존자 가섭존자 불러 분부하신다.
삼장의 경전가운데 골고루 뽑아서 저들에게 주거라!
동토에 전하여 불법이 흥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아난, 가섭 두 존자를 따라 갔는데
이게 웬일? 두 존자 손을 벌린다.
"저희들에게 무슨 선물을 가져오셨나요?
설마 맨손으로 오신 건 아니겠지요?"

나무다리는 깨달음 후 실천 의미
밑 없는 배는 새 방편 의미
불법 실천의 방법은 다양하다

발끈한 손오공, 석가모니 부처님께 달려가려 한다.
두 존자 마지못해 경전을 내려 준다.
석가모니 부처님께 작별을 아뢰곤
모든 보살님 부처님께 일일이 절 드리며
분주히 중국으로 가는 길을 내달린다.
그런데 연등고불께서 가만히 신통으로 살피시니 아뿔싸! 현장법사가 얻은 경전은 무자경(無字經)!
글자가 없는 경전이로다.
본디 깊은 진리가 담긴 경이지만
동녘 땅의 중생들은 알아보지 못할 경이로다.
백웅존자에게 명하여 급히 뒤를 잡아
글자 없는 경전을 빼앗게 한다.
경전을 빼앗긴 손오공 일행 급히 추격을 하니
경전을 티끌세상 속으로 던져 버리고 달아나네.
몇 권 다시 주어서 살펴보니 글자 없는 경전!
선물? 뇌물? 그거 안주었다고
아난과 가섭이 가짜 경전을 준 것인가?
하마터면 헛수고 헛수고할 뻔 했구나
급히 돌아와 부처님께 하소연을 하니
부처님 허허 웃으신다.
너희들이 빈손으로 와 경전을 얻어가니
빈 책을 준 것 뿐이로다.
빈 책이란 본디 '글자 없는 참된 경전' 이지만
너희들 동녘 백성들이 알 수가 없을 것이로다.
다시 아난과 가섭존자 불러
글자있는 경전 주라고 명하신다.
그런데 두 존자 여전히 선물을 요구하니
당태종이 하사한 자금 바릿대를 선물로 바친다.
그리 하야 그리 하야.....
참으로 글자 있는 경전을 얻었구나.
이제는 현장법사도 범속한 몸을 벗어
구름 타고 중국으로 돌아간다.
팔대 금강의 호위까지 받으며 돌아간다.
정해진 난관의 수를 채우느라 통천하에 빠지기도 하지만
구름을 탈 수 있는데 큰 문제가 있으랴
휘익~ 한달음에 중국 돌아와 당태종 알현한다.
떠났던 때는 정관 13년 9월 12일
돌아온 지금은 정관 27년이니
14년 걸린 긴 여정일세.
지극한 환대로 지친 심신을 달래기 며칠
돌아온 기념으로 안탑사라는 절에서
황제에게 가져온 불경을 강론하는 자리를 연다.
막 경전을 펴드는 현장법사 앞에
8대 금강 현신을 한다.
"현장법사님, 저희들과 서천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행들 모두 휘익~ 서천으로 돌아가니
부처님 일행의 공덕을 칭찬하고
각각에게 올바른 과위를 내리신다.
현장법사는 전단공덕불(𣰰檀功德不)
손오공은 요괴 잘 잡아 투전승불(鬪戰勝佛)
저팔계는 아직 덜 떨어져 정단사자(淨壇使者)
사오정은 부동의 마음으로 금신나한(金身羅漢)
용마는 변함없는 뜻을 높이 사 팔부천룡(八部天龍)
저팔계가 나만 왜 급이 떨어지느냐 투덜대지만
제단 정리하면 먹을 것 많다는 말에 헤벌쭉~
역시 덜 떨어진 저팔계?
아무튼 모두 정과를 이루어 불보살의 지위에 올랐으니
동토에 경전 전한 그 공덕 찬란하여라!
그들이 이룬 수행의 공덕 높고도 높아라!
그 은혜 지금까지 이어지니
날이 갈수록 더더욱 사람들의 칭송 이어지리!
이렇게 '손오공이 기가막혀' 라는 이야기가 이어짐도
그 큰 공덕에 바치는 조그만 찬탄이로다!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인도로 들어선 길, 그렇지만 시련이 아주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의 여난이 남아 있죠. 달나라 옥토끼가 현장법사 원정을 탐하여……. 아주 계획적으로 하계로 내려옵니다. 인도의 공주로 내려오는 거지요. 진짜 공주를 술법으로 다른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그 보낸 곳이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이에요. 〈금강경〉에 나오는 기수급고독원이 맞습니다. 기타태자라는 분의 소유였는데, 급고독 장자가 그것을 사서 부처님께 바친 곳이지요. 태자가 땅을 금으로 덮어야 내 줄 수 있다고 하여, 금으로 동산을 덮었다는 곳이지요. 그래서 그곳에 '금으로 깔았다' 는 의미를 가진 포금선사(布金禪寺)가 자리하고 있었다네요. 바로 그곳에 현장법사 일행이 머무르게 되었고, 거기에서 요괴에게 추방되어 있던 공주를 알게 되고……. 그런 저런 인연이 겹쳐져서 결국 현장법사 원정을 탐내는 요괴를 물리치고 공주를 구하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지요. 서유기도 이제 거의 끝나가지만, 이 요괴를 끝으로 현장법사 원정 탐하는 요괴도 끝이지요. 달나라 토끼가 요괴로 나온 것은 아마도 그런 상징성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양의 상징은 바로 해, 즉 태양이지요. 음의 상징은 바로 달, 즉 태음입니다. 음력을 태음력이라고 하지요? 그 태음이 바로 달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달나라 토끼가 요괴로 등장한 것은, 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태음의 요괴가 양을 탐하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리침으로써 현장법사는 완전히 색(色)의 관문을 벗어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알고 보니 불행을 당했던 공주도 원래 달의 선녀였는데, 토끼를 함부로 때린 죄업을 받느라 그래 되었다는 인연담을 깔고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뒤로 하고 현장법사 일행, 드디어 부처님 계신 영취산 뇌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뇌음사 안이라고 해도 넓고 넓네요. 그 속에 넓이가 7-8리나 되는 강이 흐르는……. 애고, 깨달음의 땅은 송곳 꽂을 자리도 없다던데……. 다른 한편으로는 넓고도 넓은 것이 깨달음의 땅이로군요. 거기에 그 넓은 강을 가로지르는 외나무다리! 낡은 통나무 다리! 하늘 끝까지 뻗은 것 같은 다리가 걸려 있네요. 현장법사와 저팔계 모두 "죽으면 죽었지 저건 못건너!"하는 다리지요. 바꿔 말하면 "못 깨달아도 좋아! 저 다리는 못건너!"입니다. 다행히 그 다리 말로 선택지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것도 좀 황당하죠? 밑바닥 없는 배라네요. 한자로 표현하면 무저선(無底船). 낡은 통나무로 된 외나무다리, 밑바닥 없는 배…….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보기로 하지요.


• 공단등(6cm) @2,500원
• 공단등(8cm) @3,000원


• 바림등(8cm) @3,000원
• 청도비닐만월등 160,000원


일반연잎 6,000


바림연잎 7,000


한지바림연잎 8,000


국산 LED전구(50개) 85,000원


방수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 22cm (50구) @65,000
• 23cm (50구) @65,000
• 25cm (50구) @65,000
• 30cm (50구) @65,000
• 35cm (50구) @70,000
• 40cm (50구) @73,000
• 50cm (50구) @75,000
• 1 m (50구) @90,000
• 2 m (25구) @80,000


한지 삼재풀이
할인가 700원(100개이상)
정 가 9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삼베 삼재풀이
할인가 800원(100개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음양오행 만재풀이
할인가 800원(100개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신년맞이기도부
할인가 800원(100개이상)
정 가 1000원
• 포 장 : 봉투 삽입


한지입춘대길(大 / 2도)
판매가 12,000원 大 (10×43cm)
10,000원 2도 (7×30cm)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경면입춘대길
판매가 6,000원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 크 기 : 7.5×30cm


입춘대길(大 / 小)
판매가 3,000원 / 2,500원
• 포장 : 100매 비닐포장
• 크기 : 大 7.5×28.5cm (흰색/노랑)
小 5×19.5cm (노랑)


금지경면 종합부
판매가 800원 (개당)
• 크 기 : 60×7cm (빨강/노랑)
• 포 장 : 개별 봉투포장


경면삼매삼재부
판매가 6,000원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 크 기 : 10×15cm / 9×14cm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 기 : 9×20cm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경면삼재부
판매가 6,000원(100매)
• 크 기 : 9×20cm
• 포 장 : 100매 비닐포장



한지 세뱃돈봉투
판매가 10,000원 (100매 포장)
A : 흰색 / C : 노랑 –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B : 흰색 / D : 분홍 – 참 좋은 인연입니다.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0-3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010-2094-2991-09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